

부안군의회-농어촌공사, 지역 농어촌 현안 놓고 머리 맞대

두 기관 간담회...농지은행사업, 폭우 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논의

2024년 09월 25일 (수) 오전 10시 43분 06초

박종수기자 bells@inews24.com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부안군의회(박병래 의장)가 지난 24일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완중)와 간담회를 갖고 부안의 농어촌 현안을 논의했다.

부안군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박병래 의장을 비롯한 부안군의회 의원과 김완중 부안지사장과 직원 등이 참석했다.



부안군의회 의원들이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부안군의회]

이 자리에서는 △농지은행사업 △농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농어촌 공간개발사업 등 농어촌공사의 중점 추진사업을 청취하고 부안군 농업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농어촌공사에 폭우에 대비한 용수개발사업 추진', '배수개선사업 등 사업의 연속성 및 현장점검', '대체작물과 연계한 용배수로 사업추진' 등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농기계 교행이 어렵고 추락위험이 있는 소교량과 경작로 등 민원현장을 함께 방문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박병래 의장은“부안군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며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부안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부안군의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박종수 기자

bells@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기사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